

국제유가, 2/4분기 26-28달러 안정

석유공사, 전문가협의회 개최 ... OPEC이 무리한 결정은 없을 듯

한국석유공사는 3월26일 민·관 합동으로 구성된 <국제유가 전문가 협의회>를 열고 <2/4분기 유가전망>을 주제로 제2차 회의를 가졌다.

회의에서 석유공사 구자권 팀장은 3월31일 비엔나에서 개최될 OPEC 총회 결과를 전망하고 가능한 3가지 유가전망 시나리오를 발표했다.

예상 가능 시나리오로는 OPEC이 ▷추가감산 ▷1일 2350만배럴 현행 쿼터 유지 ▷2월11일의 감산합의 이행 연기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을 분석했으며, 현행 쿼터를 유지하는 방안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.

이에 따라 쿼터가 유지되고 중동 및 베네주엘라 등 돌발 요인이 없다면 2/4분기 국제유가는 배럴당 26-28달러 선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주제 발표 후 참석자들의 토의에서는 대체로 OPEC 총회에서 다시 시장에 충격을 줄만한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2-3개월 시장의 흐름을 지켜본 후 생산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.

에너지경제연구원 이문배 박사는 “OPEC 총회에서 별다른 발표 없이 생산량 조절을 5-6월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”고 밝혔으며, LG-Caltex정유 김응식 상무 역시 “OPEC이 총회에서 감산조치 없이 결정을 5-6월로 미룰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유가는 Fund가 언제 확보한 원유를 매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”고 전망했다.

LG경제연구원 이지평 연구위원은 “2/4분기 미국이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25달러 이하의 대폭적인 하락은 어려우나 그렇다고 OPEC도 실제 감산조치는 어렵고 단순히 Comment에 그칠 것으로 본다”고 밝혔으며, SK의 서석원 리스크매니지먼트팀장은 “투기자금이 원유에 투자하고 있으나 2003년 4/4분기 이후 환율, 이자율, 석유 수급 등의 이유로 이익실현의 기회를 잡지 못했으나 이제 원유 처분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본다”고 평가했다.

산업자원부는 <국제유가 전문가 협의회> 회의내용을 석유 정책 및 석유위기 대응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3/29>